

현상과 인식 소식

제 2014 - 1호
발행일: 2014. 2.
발행인: 김중섭

학회장 인사말

2014년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원 여러분 모두 평안하시며, 뜻하시는 모든 일을 순조롭게 이루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해를 보내면서 되돌아보면, 한국 사회를 비롯하여 인류 사회는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나라 밖의 상황을 보면 암울한 마음마저 듭니다. 중동의 시리아에서는 여전히 내전 수준의 전쟁이 지속되고 있고, 이집트에서는 이슬람과 정치의 복합적인 관계가 국민 갈등의 씨앗이 되어 충돌이 일어났고, 오랜 종족 충돌 기간을 겪어온 수단에서는 마침내 남수단이 독립을 하였지만, 종족 갈등은 여전히 있습니다. 또 환경 재앙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그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부족하여 끓는 물에 들어앉아 있는 개구리 형상이고, 가난한 나라의 식량 문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관심은 아예 없는 듯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에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면서도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져 가진 사람들의 탐욕과 무관심을 질타하는 소리가 높고, 정보통신이 발전하는 가운데 국가기관의 무차별한 도청과 검색이 이루어졌다는 것에 전율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새로 즉위한 프란체스코 교황께서 겸손과 약자에 대한 사랑을 강조하는 모습에서 희망을 갖기도 합니다.

나라 안의 상황을 보아도 조용하게 지나간 한 해가 아니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끝난 1년이 지난 현 시점에도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을 둘러싼 민주주의의 위기 문제도 해결하지 못한 채 진행형이고, 한국사 교과서 문제는 유례없는 채택률 0퍼센트 수준을 기록하며 진정되는 듯 하다가 정부 개입으로 내연의 불씨를 남기고 있고, 대규모 원전 비리로 대표되는 부패는 사회 전반에 만연되어 금전의 위력을 발휘하며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사회라는 것을 날날이 드러내고 있고, 빈부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청년 실업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찾을 수 없고, 남북 긴장은 더욱 고조되어 평화와 통일에 대한 희망을 실현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고, 날마다 더욱 광폭해지는 폭력과 범죄에 불안이 고조되고 있고, 심지어 스스로 삶을 마감하는 참혹한 사례가 연일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사회가 인간 존엄을 지켜주는 사회인가, 편안하고 만족스럽게 삶의 가치를 구현할 수 있는 사회인가 질문하게 됩니다.

참으로 암담하고, 암울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희망 탐색은 여러 곳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학문 연구와 교육, 그리고 사회 봉사’를 통하여 희망을 찾고, 또 실현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 희망의 결실이 한국인문사회과학회에서, 또 「현상과 인식」을 통해서 확인되기를 기대합니다.

2014년 갑오년 새해에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원 여러분의 연구와 교육, 사회 봉사에 많은 축복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갑오년 정월에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장 김 중섭 아뢰

2013년 가을철 학술대회 소식



가을철 학술대회가 학회창립 15주년을 맞아 특별히 “학문 담론의 성찰”이라는 주제로 서울 배재 학술지원 센터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제 1부 주제발표에 이어 제 2부는 손보기 기념 강좌로 진행되었습니다. 제 1부에서는 <‘굴대 시대 이후’의 문명사에 대한 학제간 연구 관심(박영신 연세대 명예교수)>, <한국 법학 방법론(methodology)의 반성: 특히 인접 학문과의 비교를 통하여(김철 숙명여대 교수)>, <우리 지성사에 기대 본 ‘역사 전쟁’: 역사교과서 논의를 보기 삼아(박정신 숭실대 교수)>, 그리고 <동아시아 담론: 대항 담론인가, 대안 담론인가?(송재룡 경희대 교수)>에 대한 주제발표가 있었고, 제 2부는 지난 2010년 타계한 우리나라의 저명한 역사학자이자 고고학자인 고 손보기 박사를 기리는 ‘제2회 손보기 기념강연’으로 <겉멋 든 문화(최대권 서울대 명예교수)>가 이어졌습니다. 이 날 행사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학자들이 모여 전문 지식을 나누며 공론을 도모하는 우리 학회의 장점을 살리기 위해 전체 토론을 라운드 테이블 형식으로 진행하였고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최근 각 학문 분야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담론을 함께 논의하고 성찰했습니다.



현상과 인식 학회 임원회 알림 사항

1) 임상헌 교수(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사회복지학과, limsanghun@khu.ac.kr)를 신임 학술이사로 선임하였습니다. 일을 맡아주신 임상헌 교수께 감사드립니다.

2) 2014년 가을철 학술대회 손보기 교수 기념 강연자로 이용조 한국선사문화연구원 이사장(충북대학교 명예교수)을 초청하였습니다. 기념 강연을 승낙을 해 주신 이용조 이사장께 감사드립니다.

현상과인식 2013년 제3호(가을호), 제4호(겨울호) 발간

□ 2013년 제3호(가을호) 차례

○ 특집 논문 :이 시대 대학의 위기

- 일제 식민지 체제와 신자유주의체제 하에서의 교육 : 김명배 숭실대 베어드학부대학
- '잉여' 시대의 대학, 길 찾기 : 구미정 한가람연구소 전임연구원

○ 일반 논문

- 시민운동의 정치 참여를 통해 본 시민운동의 성장과 한계 (김동노, 연세대 사회학과)
- 한국사회문화격차의 변화 추이와 문화취향 (강수택/ 박재홍 경상대 사회학과)
- 한국여성학 제도화의 전사기(1960-70년대) 지식 생산의 동학: 장소, 사람, 프로젝트 (김영선 연세대 국학연구원 HK연구교수)
- 중년기 위기에 대한 통합적 접근: 인간발달에 대해 세가지 주요 관점을 중심으로 (오제은 숭실대 기독교학과)
- 현상과 인식 노트 : 로버트 벨라(1927-2013), 나의 선생을 기림 (박영신, 연세대 사회학과 명예교수)

□ 2013년 제4호(겨울호) 차례

○일반 논문

- 인권의 '정치적' 재구성: 자유권, 사회권을 넘어 정치적권리로, 국민주권을 넘어 새로운 정치적 주권을 향하여" (박주원 영남대 정치외교학과)
- 일본 '인권마을 만들기'의 기원과 성과: 오사카시 스미요시지구를 중심으로 (김중섭, 경상대 사회학과)
- 칸막이를 허무는 교회: 역사학에 기대 한국교회 개혁을 위한 제안 (박정신, 숭실대 기독교학과)
- '소속없는 신앙인'에 대한 연구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학교)
- 종교와 사회발전: 잉글하트의 수정 세속화론과 관련하여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 유럽의 사회적 모델과 유럽연합의 리스본 전략 (조돈문, 카톨릭대 사회학과)
- 도시공간의 탈경계화와 액화근대성 (박창호 숭실대 사회학과/김흥기 숭실대 건축학부)
- SNS 회의론: SNS 이용 거부 징후에 대한 탐색적 고찰 (오미영 가천대)

2014년 봄철 학술대회 안내

2014년 봄철 학술대회는 막스 베버 탄생 150주년을 기념하여 한국사회이론학회와 공동 주관 하에 열릴 예정입니다. 일시는 2014년 4월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장소는 추후 결정하여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주제: 막스베버 탄생 150주년 기념 학술대회

일시: 2014년 4월 19일 오전 10시 - 6시

장소: 추후 공지

현상과인식 투고안내

현상과인식에 실릴 원고를 수시로 모집합니다.

제 1,2호는 5월 31일이 발간 예정일로 늦어도 4월 1일까지,

제 3호는 9월 30일이 발간 예정일로 8월 1일까지,

제 4호는 12월 31일이 발간 예정일로 10월 16일까지 접수합니다.

논문을 투고하실 분은 현상과인식 편집 기준에 맞추어 논문을 작성하신 후 편집이사 김명배 교수 이메일(sjhk1809@hanmail.net)로 보내시면 됩니다.

회원 동정

1) 전임 회장이셨던 이원규 교수(감리교신학대학교, 종교사회학 전공)과 박정신 교수(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사 전공)께서 2014년 2월 말로 정년 퇴임을 하십니다. 우리 학회와 학문 발전에 기여하신 두 분께서 건강하게 정년을 맞이하신 것에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2) 현재 영국 글래스고우에서 안식년을 지내고 있는 김성진교수님(덕성여자대학교, 정치학 전공)이 회원 여러분 모두에게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소식 가득하시길 바란다는 소식을 전해 오셨습니다. 보람된 재충전의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 한국인문사회과학회 회원 간 정보를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소식을 나누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일이 있는 경우는 물론, 주변 지인께서 알고 계시는 회원 소식을 알려주시면 공지하겠습니다. 연락은 홍보이사 오미영 교수(이메일 ohmy@gachon.ac.kr 전화 010-2041-5234)에게 해주시면 됩니다.